‘시간여행축제’ 발전 방안 모색

군산시, 축제 성과분석 연찬회 개최… 축제 성과 · 개선사항 관련 토의 · 공유 자리

군산시는 지난 4일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및 TF(전담조직) 위원들과 함께 2024 시간여행축제 성과분석 연찬회를 가졌다.

성과분석 연찬회는 2024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 성과와 개선사항을 토의하고 이를 공유하여 내년 축제를 위해 보다 발전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진행되었다.

연찬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축제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 온라인 기반 적극적 홍보 효과이다. 먼저 시는 2024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고 축제 캐릭터 지동이 이모티콘(그림말)을 배포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청년 응원단가 제작한 각종 숏츠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큰 호응을 받은 것이 성공적인 관광객 유입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성과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시는 축제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행사는 ‘모아모아 시간’으로 △선유도, 산북동 공룡 발자국 화석 산 지, 철길마을, 초원사진관, 동국사 등 군산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군산에서 숙박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축제장에서 기념품 교환 및 각종 유료프로그램 할인권 등을 증정했다. 위원들은 ‘모아모아 시간’ 행사가 축제장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군산의 주요관광지에 유입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축제장 공간 구성의 집중화’를 꼽았다. 작년의 경우 축제장이 대학로에서부터 초원사진관까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관람객 유입이 어려웠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는 (구)시청광장 중심의 구영6길, 구영7길 골목길들로 축제장 동선을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는 관광객의 동선을 쉽게 만들었고 교통체증도 완화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방문객 계측 결과 지난해 13만647명보다 약 3만명이 증가한 15만9,911명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전주, 김제, 완주, 임실 등지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열렸으나 군산시간여행축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손색없음을 실감케 했다.

반면에 개선할 점으로 △주차 공간 부족 △밤 10시까지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 △야간 조명 조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축제장 인근 주민들과 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공기 맑은 도시로 공식 인정

2024년 공기의 날 행사서 ‘굿 에어 시티상’ 수상

군산시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기의 날 행사에서 ‘굿 에어 시티(Good Air City) 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굿에어시티는 공기의 질 개선 노력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환경 도시의 모범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그동안 시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해 교통 분야에서의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환경 교육과 캠페인 지속 △공기 질 개선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제시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통한 실시간 대기 상태 점검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은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이자 군산시가 환경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군산시 환경정책과는 “이번 수상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산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신청사와 함께 스마트행정 제공

582대 정보통신 장비 · 43개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익산시가 신청사 이전과 함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체계 운영에 힘쓴다.

시는 신청사로 서버 123대, 보안 · 네트워크 199대 등 총 582대의 장비와 43개 행정업무 시스템을 이전하고, 한 달여간 모니터링한 결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는 정보통신 기반 환경 구축과 이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설 구축, 이전 작업 등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먼저 정보통신시설은 이중화된 전기 · 공조시설과 보안관제를 비롯 소방, 누수, 항온, 항습 관리 체계를 갖춰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했다.

또한, 이전 작업을 위해서 사전에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진행하고 정보보안에 역점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작업을 추진했다. 80여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 9월 1차 작업으로 통신실 정보통신망 이전을 완료하고 2차 작업으로 지난달 전산실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외부충격에 민감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과 대체장비, 부품수급 계획을 마련해 안전성과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위한 산림복지 공간 확대

‘작은자매의 집’에 나눔 숲 조성

녹색정원도시 익산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공간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작은자매의 집에 산림복지 나눔숲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은 산림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으로 추진한다.

익산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작은자매의 집에 자연친화적인 숲과 산책로, 쉼터를 조성한다. 시설 이용자를 비롯해 고령자, 보행약자 등 지역 주민이 자연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강소특구 미래 발전 위해 ‘한자리에’

2024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정책교류회 개최

국립군산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단장 장민석)은 ‘2024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정책교류회’를 5일 군산 에이본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교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전북산학융합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인력개발원,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지역 내 산·학·연·관 핵심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및 미래발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추진 실적 및 목표 공유 △전북 군산 강소특구 2단계 추진 전략 및 방향성 선정 및 공동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먼저, ‘강소특구 추진 경과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구성회 강소특구육성사업단 본부장은 “군산강소특구는 2020년 8월 지정 이후 정량·정성적으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3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군산강소특구의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해 2단계 추진 전략 및 안정적 중장기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특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강소특구의 핵심 역할인 연구소기업을 19개 설립 완료, 기술이전 및 출자 121건, 기술이전사업화(R&BD) 과제 31개 60.6억원 선정, 기술창업 35개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으로 특허창출 70건, 시제품 제작 120건, 특화분야 기업간 상생협력 사업화 지원 9건 11억원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장민석 단장은 “지난 4년간 기술이전 및 출자실적 상승 뿐만 아니라 투자연계 실적향상, 입주기업 증가, 연구소 기업설립 등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군산강소특구 2단계 추진 목표를 글로벌 브랜딩으로 두고 기업 역량,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심화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미공군 8전비 장병 초청 문화체험행사

군산시는 5일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장병 초청 군산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화체험 행사는 군산기지에 근무 중인 미군 장병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군산의 근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산시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친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미군 장병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산시 성산면 깐치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쌀 강정과 인절미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투호, 굴렁쇠 등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미군에게 생소한 한국 전통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체험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오후에는 금강미래체험관 전망대에서 금강 하구 일대를 둘러본 뒤 환경보호를 위한 커피박 재활용 화분 꾸미기 활동에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근대역사박물관에서 해상물류유통의 중심지였던 옛군산의 유물을 살펴보고, 근대생활관에서 군산의 근현대생활사를 체험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예결특위 직무연찬회 개최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는 지난 4~5일 부안군 일원에서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연찬회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박사가 강사로 나서 ‘예산안 심사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박철원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중앙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경기 부진에 의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 본예산 심사방향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박철원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기법 습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본예산, 2024년 결산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